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5월

선교편지 제 101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10월이 되면 이곳 선교지에 정착을 한지 벌써 10년째가 됩니다. 이젠 제법 모든 일상에 익숙할만
 도 한데, 아쉽게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아닌 '현지 음식'에 아직도 자유롭지 않
 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정착 초기에는 빠른 시간에 선교지에 적응을 하려고 현지 음식이라면 마치 늘상 먹어왔
 던 사람처럼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가까이 음식과 관련 수 많
 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도리어 먹는 것에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더 소극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음식을 먹는 횟수도 점차 줄어 들고, 부득히 식사를 해야 할 때는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을 정도입니
 다. 제 입맛에는 현지 음식이 전반적으로 너무 짜고, 달고, 조미료가 강해서 식사를 할 때도 힘이 들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도 뒷 맛이 오래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로, 언젠가 이곳을 떠나 본국에 돌아 가면 꼭 먹어야 겠다는 음식들을 제 아내와 함께 입맛을 다시며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먹고 싶은 음식들 중에서 의외로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 할 때가 많
 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먹어왔던
 것과는 약간 다른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채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곳에도 같은 이름의 '시금치'를 구할 수
 있지만, 그 맛은 이게 시금치인가 할 정도로 맛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무와 배추도 구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만큼 김치 맛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주먹만한 빨간 토마토를 우적우적 잘도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큰 토마토는 구경하기가 어렵고, 대신 호두알 보다 조금 더 큰 푸르스름한 토마
 토를 국에 넣고 끓여 먹고 있습니다. 시원한 콩나물 국을 먹어 본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선교지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먹고 싶은 채소를 직접 재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이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재배 가능한 채소를 선별해서, 한국에 있
 는 지인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귀한 씨앗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깻잎, 부추, 풋고
 추, 피망, 모듬 쌈 채소, 숙갓, 호박, 열무,.... 씨앗이 담겨져 있는 봉투를 바라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벌써 싱싱한
 채소를 밥상위에 가득 놓고, 고향의 맛을 진하게 맛본 것처럼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주변에 경험이 많다는 현지인의 도움과 인터넷을 찾아서 뒷 뜰을 개간하고 줄을 맞추어 종류
 별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많은 모기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가운데, 푸릇 푸릇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여 꿈을 더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쑥쑥 자라야 할 채소들이 더 이상 자라라지 않고, 서서히 시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토마토는 씨앗이 담겨있던 포장지의 사진과 같이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아닌 호두만한 크기의 열매를 한, 두개 맺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열무'만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듬성듬성 자라고, 나머지 모든 채소들은 그야말로 '전멸'이었습니다. 기대가 컸었던 만큼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찾기 힘든 싱싱한 '열무'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열무 씨앗을 심은지 거의 두 달만에 한 소쿠리 만큼의 열무를 수확 했습니다. 제 아내가 마치 인삼으로 김치를 담그듯이 정성을 다하여 '열무 김치'를 담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란, 와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욘 4:10,11)

 이곳은 일년 내내 더운 곳이지만,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 됩니다. 더위에 익숙한 현지인들 이라도, 이 때만큼은 햇볕을 피하려고 남, 녀를 가리지 않고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때를 맞추어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방학과 졸업식을 하고, 비교적 활동을 자제하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더위로 인하여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떠드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때만큼은 외출 할때마다 여분의 셔츠와 손수건은 별도로 챙기고,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익핏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주중에 학교를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월 한번씩 익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만나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만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간곡하게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익핏 마을에 들어서니, 더위로 인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동네 전체가 적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에 들어서니, 뜻 밖에도 마치 대형 행사를 치루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앉아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알고보니, 한 학년을 마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총회 (PTA)를 하는 날에 저희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익핏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후원자'를 통하여 익핏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약 270여명의 학생들에게 육성회비를 대신 지불해 주어 왔었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체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하는대도 마음과 달리 표현이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모든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함을 표하니 저희가 도리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을 대신하여 학부모들이 정성껏 준비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대표자들도 함께 자리를 하여, 지난번에 방문한 단기 선교팀의 의료선교로부터 시작하여 배구 시합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익핏 마을을 위하여 큰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은 모두 기억할 수 없지만, 일일이 다가와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핏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익핏 지역의 선교가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경계심은 이미 사라진지가 오래되고, 마을에 들어서면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반갑게 손을 흔들 정도로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 사역을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부모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익핏 예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익핏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 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과 물질로 늘 후원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교회에서 특별한 순서를 계획할 때면, '정전'이 될 경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고없이 정전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중에 정전이 되어서 음악을 동반한 각종 순서들이 하객들의 아카펠라로 급하게 변경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부활절 새벽 예배 중에도 정전이 되어, 칠후같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교회 밖에 정차한 차를 예배당으로 향하게 하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금년 부활절 예배를 계획하면서도 '정전'이 무척이나 신경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주일을 앞두고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JESUS'를 상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예수 영화'라고도 하는 "JESUS"는 1979년 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제작한 오래된 영화이지만, 아직도 선교용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상영되는 영화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어나 표준어가 아닌 이곳에서 사용하는 '지방 언어'로 더빙 (Dubbing)된 영화를 확보하고, 이번 부활절에 교회에서 상영을 하면 좋겠다고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어린이용 영화도 확보 했기때문에 주일 학생들에게도 별도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동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위해서 프로젝터를 2개씩이나 준비하고, 2시간의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잘 볼 수 있도록 간식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아닌 영화관에 온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하나..., 영화를 보고 나서 십자가와 어떻게 은혜스럽게 연결할까....등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침내 예정된 시간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간단히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고, 드디어 '예수 영화'가 시작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따라서 그대로 영화화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상영 도중 아무도 자리를 떠나 이동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들 영화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당 한편에 간식과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정전'이 없는 가운데, 마침내 2시간의 영화를 감사하게 잘 마치었습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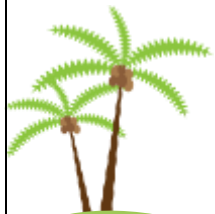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예배 후에는 교인들끼리 돌아가며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영화를 본 이후에는 그러한 작은 소란함도 없습니다. 도리어 간식을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갖다 주어 먹게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영화를 통해 받은 감동이 매우, 매우 컸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상영한 이후 늦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차로 몇몇 교인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화를 본 소감을 물었습니다. 동승한 여 집사님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이렇게 무서운 영화는 처음 보았다고 하기에, 무엇이 무서웠는지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 가셨을까 생각했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눈물이 났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생각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만날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